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의회에 낙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주지사, Hyde 수정안의 폐지와 주 이외의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 지원 요구*

*상원에 여성 건강 보호법을 통과시키도록 촉구*

*여기* 에서 볼 수 있는 주지사의 서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의회에 낙태 서비스와 치료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oe 대 Wade 사건 3년 전 뉴욕이 낙태를 합법화했을 때, 뉴욕주는 낙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안전한 항구 역할을 했고, 대법원이 Roe를 파업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회가 전국적으로 낙태 접근을 보호하고 뉴욕과 같은 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추가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등한 권리와 생식 건강의 최전선에 앞장서는 뉴욕의 오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의 모든 주들이 따라야 하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서한은 곧 있을 Dobbs 대 Jackson 대법원의 유출된 판결문 초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chumer 리더, McConnell 리더, Pelosi 의장, McCarthy 대표 귀하

5월 2일, *Dobbs 대 Jackson* 여성 건강에 관한 재판에서 곧 있을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갑자기 50년 전 *Roe 대 Wade*가 확립한 생식권 보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은 낙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없애고, 여성의 기본권을 부정하며, 낙태 권리와 생식 건강에 대한 결정을 주정부에 위임할 것입니다.

뉴욕은 기념비적인 *Roe 대 Wade* 판결 3년 전인 1970년에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그 당시 뉴욕은 합법화 후 처음 2년 동안 4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주에서 이뤄졌으며, 보건당국은 그 중 3분의 2는 주 밖에서 여행을 온 여성들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Roe*가 재판에서 질 경우, 우리는 뉴욕으로 낙태 치료를 위해 여행하는 주외 환자들이 적어도 1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 자체로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여성의 권리와 생식 건강을 보호한다는 뉴욕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뉴욕이 다시 한 번 낙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여성 건강 보호법(Women's Health Protection Act)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주, 상원은 낙태 권리와 *Roe*의 보호를 성문화하기 위한 시도로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뉴욕에서 했듯이 여러분이 이 법을 제정하고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다른 음험한 장벽들을 다룰 것을 촉구합니다.

의회는 즉시 낙태 서비스 및 전국 의료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Roe 대 Wade* 판결을 연방법으로 성문화** *Roe* 아래에서 제공되는 보호 없이, 낙태는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유색인종 여성들, 남부와 중서부에 거주하는 사람들, 저소득층 개인, 이민자, 그리고 이미 뉴욕과 같은 안전한 항구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의료 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칠 것입니다. 뉴욕은 낙태 권리와 접근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 낙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거부당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불안하기 위해 여성 건강 보호법과 같은 범 국가적인 법을 통과시킬 때가 지났습니다.
- **Hyde 수정안 폐지:** 수십 년 동안 Hyde 수정안은 저소득 미국인들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기금을 포함한 낙태 서비스에 연방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뉴욕은 주 메디케이드 기금을 통해 낙태를 보장한 15개 주 중 하나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소득이나 건강 보험 때문에 낙태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Hyde 수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 **안전한 항구 주에 연방 지원 제공:** 뉴욕주는 이 획기적인 판결이 있기 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Roe 대 Wade* 재판이 뒤집힐 경우 낙태 치료를 받으려는 타주에서 오는 환자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완전히 나서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러한 새로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Hyde 수정안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이어, 뉴욕과 같은 다른 주에서 환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에 연방 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의료 지원 기금을 받는 주가 FDA의 의료 낙태 약품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 Hyde 수정안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고 메디케이드 의약품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주는 FDA 승인 의약품인 마이프리스톤과 같은 의약품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프리스톤 처방 제한이 있는 주를 재정적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새로운 채널을 열 것입니다.
- **원격 진료 서비스 확장:** 원격 진료 서비스는 비용, 위치, 언어 장벽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부상했습니다. 생식 치료를 위한 원격 진료에 대한 접근은 다른 적격 의료 서비스와 동등해야 합니다. 원격 진료를 통한 낙태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비롯해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식 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증대해야 합니다.
- **미국 우정국이 모든 주에 낙태 의약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보장:** 많은 주들이 국경 내에서 안전한 낙태 서비스를 위한 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우편과 배달 서비스를 통한 낙태 유도 약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정국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며, 의회는 환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처방된 낙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우편 서비스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저의 팀과 저는 낙태 서비스를 포함한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씬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지시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는 환자들에게 오명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의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법을 임상 기준에 맞춘 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욕 서비스 제공자들은 불필요한 장벽 없이 낙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태 접근 작업 그룹(Abortion Access Working Group)을 소집하여 환자, 서비스 제공자 및 옹호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국가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에 필요한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과된 주정부 예산안에서, 우리는 비용 부담 없이 낙태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건강 플랜에 대한 요구 사항을 법제화했습니다.

뉴욕주는 낙태를 포함한 생식 건강 서비스가 정치적 미사여구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경험과 필요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